

인천시립극단 Incheon City Theatre Company

1990년 6월 장기적인 인천문화예술 발전계획에 따라 창단한 인천시립극단은 공립극단으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창단되었으며, 수준 높은 공연 활동을 통해 인천연극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앞장 서며 공립극단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창단공연인 「춘향전」을 시작으로 수많은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인천지역의 연극 대중화에 앞장서 왔으며 서양의 고전을 한국정서에 맞게 번안한 공연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극 프로그램, 시즌별 레퍼토리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연극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과 신뢰받는 극단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였다.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는 공연과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다양한 공연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예술단체가 되고자 한다.

매년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인천시립극단이 되기 위해 오늘도 시립극단의 모든 단원들은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2016년 공연실적

(단위 : 건, 회, 명)

구 분	계	정기공연	기획공연	청소년대상 공연	찾아가는 예술활동	해외공연	상설무대	기 타
공연건수	28	2	1		24		1	
공연횟수	43	7	11		24		1	
관람인원	10,927	2,918	869		6,840		300	

* 2016년 시립극단 공연현황 총괄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계	28건 / 43회			10,927명
2016. 5. 27 ~ 5.29 대공연장 (4회)	제71회 정기공연 “꿈하늘”	<p>연출 : 김석만 극작 : 차범석</p> <p>*출연진*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훈 송주희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작곡 : 황호준 안무 : 박무영 무술지도 : 이정훈 무대디자인 : 임건수 조명디자인 : 신재희 영상디자인 : 신재희 음향감독 : 김현산 의상디자인 : 정경희 소품디자인 : 서정인 분장디자인 : 손진숙 사진 : 유재형 일본어지도 : 쥬카구치 토모 홍보디자인 : 김미연 헤어디자인 : 빅토리아 조명·영상 어시스트 : 조희란 영상프로그래밍 오퍼레이터 : 현종찬 조예본 손지원 영상소스제작 : 김기봉 남윤아 조안무 : 김선영 무대감독 : 용선중 조연출 : 손경희</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박선영</p>	<p><꿈하늘>은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1880~ 1936))의 삶과 시인이며 역사학자였으며, 독립운동가로 활약한 그분의 역사적 행적을 그린 서사극이다.</p> <p>최근 일본 각료들의 거듭된 역사적 책임에 대한 망언과 일본 헌법 개정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현실로 다가온 때에, 신채호 선생의 독립정신의 정기를 되새겨 보는 작품을 올리는 것은 시의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p> <p>특히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예술단체인 인천시립극단이 다양한 관객들과 역사적 현실과 미래에 바탕을 둔 현실적 역사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연극을 올린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바람직한 레퍼토리 선정이라고 볼 수 있다.</p> <p><꿈하늘>은 신채호 선생의 동명 소설 <몽천 夢天>(1916)에서 이름을 가져 왔으며, 차범석(1924~2006) 선생의 희곡 <식민지의 아침>(1986 발표)의 각색 공연작품이다. 신채호 선생은 항일투쟁시기에 그의 애국적 투쟁의식을 전하기 위하여 옛 고구려의 영화를 펼쳐 보이는 웅장한 중편소설 <몽천>을 발표하여 을지문덕 장군과 무궁화의 대화를 서술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제목을 가져왔으며 신채호의 독립의지와 꿈을 그리기 위하여 작품 9장에서 역사학자 신채호가 만주벌판에서 옛 고구려의 영화를 꿈꾸는 장면으로 연출된다.</p> <p><꿈하늘>은 1987년 국립극단 제125호 정기공연으로 올라간 바 있다. 당시에 차범석 선생의 <식민지의 아침>을 연출을 맡은 김석만에 의해서 <꿈하늘>로 각색하여 올렸다. 이번 인천시립극단의 2016년 첫 정기공연에서 1987년의 <꿈하늘>을 현재의 <꿈하늘>로 각색하여 올리게 된다. 주목할 것은 이번 공연에서는 신채호 선생의 말년의 독립투쟁활동기 가운데 무정부주의 활동을 부각시켜서 철저한</p>	2,149명

항일정신을 강조한 점일 것이다. 이는 최근 일본 각료들의 역사적 책임을 무시하는 망언적 발언과 행동에 경종을 울리며 동시에 올바른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작품은 신채호가 대련 감옥에서 임종을 앞두고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그의 독립운동

활동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신채호의 일대기를 세 시기로 나누어 청년기의 조선에서 항일운동, 중년기의 만주와 북경에서의 창작과 독립운동 시기, 장년기의 무정부주의 항일투쟁시기를 조명한다. 따라서 신채호는 배우 세 명이 제각기 다른 시기를 맡아서 변하는 신채호를 더욱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그려낼 것이다.

신채호의 계몽운동시기인 산동학원 시절부터 대한매일신문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다가 신간회 창립멤버로 활약하고 만주로 망명하기까지 젊은 신채호가 맡으며, 만주에서 역사저술을 하면서 김원봉의 의열단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시기에는 중년의 신채호를 그리며, 말년에는 무정부주의자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만주 대련 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를 장년의 신채호가 맡게 된다.

이러한 신채호의 일대기가 조선 반도와 반주벌판을 배경으로 전체 20장으로 구성된 서사극으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 참고**

<꿈하늘>은 가족극, 또는 역사를 배우는 중 고등, 대학생들에게 일제 강점기의 신채호 선생의 활약상을 토대로 역사교육의 현장을 강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인천 교육청 관할의 중 고등학교 역사교사를 상대로 “<꿈하늘>을 통해서 보는 일제 강점기 한국역사”와 같은 특강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6. 7. 8(금) 무의도 포내경로당	찾아가는 공연 “알,비장전”	연출 : 이완희 *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p>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사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p> <p>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p> <p>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p> <p>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p> <p>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 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p> <p>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p>	100명
2016. 7. 11(월) 용현중학교			<p>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p> <p>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p>	650명
2016. 7. 12(화) 영흥중고등학교			<p>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p> <p>궤 속에서 툽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p>	240명
2016. 7. 13(수) 광성고등학교			<p>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p>	670명
2016. 7. 14(목) 간재울중학교			<p>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p> <p>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p> <p>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60명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6. 7. 15(금) 남동고등학교	찾아가는 공연 “알,비장전”		<p>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사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p> <p>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p> <p>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p>	800명
2016. 7. 16(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공연 “알,비장전”		<p>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p> <p>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p> <p>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p> <p>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p>	300명
2016. 7. 18(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p>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p> <p>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p> <p>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p> <p>궤 속에서 톱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p>	150명
2016. 7. 19(화) 강화여자고등학교	찾아가는 공연 “알,비장전”		<p>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p>	350명
2016. 7. 20(수) 인천외국어고등학교			<p>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p> <p>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p> <p>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500명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6. 8.20 ~8.21 소공연장 (3회)</p>	<p>제72회 정기공연 “인천노트”</p>	<p>작 : 히라타 오리자 번역 : 성기웅 연출 : 강량원</p> <p>*출연진* 서국현 이범우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김문정 김태범 김태훈 송주희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객원> 이경미</p> <p>*스텝* 번역 : 성기웅 무대디자인 : 임일진 조명디자인 : 최보윤 음악 : 강영규 음향감독 : 이복행 소품디자인 : 장경숙 분장디자인 : 장경숙 무대감독 : 박상우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김미연 훈련장 : 이완희 조연출 : 손경희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박선영</p>	<p>이 연극의 무대는 인천 송도에 있는 미술관으로 17세기 화가들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그림을 좋아하는 장녀 덕택에 형제자매들이 그림을 관람하고 저녁식사를 할 예정으로 모였다. 공장과 직장에서 겨우 빠져나와 허겁지겁 달려오지만 대부분 약속시간을 한참 지나 도착한다. 먼저 온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한 사람씩 도착할 때마다 안부를 묻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p> <p>그리고 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로비에는 많은 관람객들과 미술관 관계자들이 지나가거나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나눈다.</p> <p>어떤 여대생은 우연히 옛 가정교사를 만난다. 한 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가 헤어진 그들은 담담하게 인사하고 헤어진다. 평화유지군으로 해외에서 복무하는 군인과 여자친구도 지나가고, 상속받은 그림을 미술관에 기부하는 수속을 밟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또 함께 사회운동을 했던 지금은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는 선배와 농촌운동을 할 예정인 후배가 만나 최근의 근황을 묻고 추억담을 나눈다.</p> <p>이것이 줄거리의 전부이다. 줄거리에서 보여지듯 이 연극은 특별한 사건이나 줄거리 없이 미술관에 온 관람객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관객들 역시 이들이 그려내는 무대를 담담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그들이 나누는 일상적인 모습일 뿐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묘하게도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처지가 환하게 꿰어지기 시작한다.</p> <p>예를 들면 1년 만에 시골에서 올라온 장녀를 만나는 형제자매들의 내력이 손에 잡힐 듯 고스란히 꿰어진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사는 누이에 대한 미안함이 숨겨져 있다. 그 미안함도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일상의 고단함</p>	<p>769명</p>

			<p>과 고민,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적인 문제 등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이밀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들이 나누는 떠들썩한 인사 속에는 도시 생활의 고단함과 고향에의 향수가 짙게 배어 있다. 또 반전운동을 함께 했던 선배와 후배에게는 사회 변혁 운동을 그만뒀다는 자책감속에서도 여전히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관찰되고, 군인과 여자 친구의 대화에서는 군인이 곧 전쟁지역으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과 군인이 겪고 있는 공포와 고독을 공감하게 된다.</p> <p>이 연극은 마치 등장인물이 관람하려는 17세기 그림과 유사하다. 츠베당 토도로프는 <일상예찬>이라는 책에서 '17세기 네덜란드 회화는 무릎 다듬고 감자껍질을 벗기는 아주 사소한 행위를 그렸는데 관람자는 그 그림 속에서 그들이 겪어온 일생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렇듯 이 연극은 등장인물들이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관객들은 그 섬세하게 포착된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세계 전체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다.</p>	
--	--	--	--	--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6. 9. 19(월) 예일고등학교	찾아가는 공연 “알,비장전”	연출 : 이완희 *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p>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사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p> <p>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p> <p>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p> <p>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p> <p>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 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p> <p>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p> <p>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p> <p>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p> <p>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p> <p>궤 속에서 툭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p> <p>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p> <p>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p> <p>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p> <p>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600명
2016. 9. 20(화) 인천 7873부대			200명	
2016. 9. 21(수) 산곡고등학교			600명	
2016. 9. 22(목) 남동구 노인복지관			100명	
2016. 9. 23(금) 해군 223전진기지 (소이작도)			80명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6. 9. 26(월) 효드림복지센터	찾아가는 공연 “알,비장전”	연출 : 이완희 *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p>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사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p> <p>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p> <p>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p> <p>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p> <p>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 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p> <p>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p>	30명
2016. 9. 27(화) 육군제61보병사단			<p>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p> <p>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p>	500명
2016. 9. 28(수) 인천구치소			<p>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p> <p>궤 속에서 툭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p>	100명
2016. 9. 29(목) 연일학교			<p>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p>	250명
2016. 9. 30(금) 동산중학교			<p>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p> <p>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p> <p>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160명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5. 11. 4 ~ 11.13 소공연장 (13회)</p>	<p>기획공연 “선착장에서”</p>	<p>원작 : 박근형 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정순미 김태범 김태훈 송주희 황혜원 권순정 이규호</p> <p>*스텝* 무대디자인 : 임일진 조명디자인 : 이나구 음향감독 : 이복행 음악감독 : 김두환 분장디자인 : 이지연 의상디자인 : 이지연 무대감독 : 임병찬 드라마트루그 : 김태범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김미연 조연출 : 손경희 무대디자인 어시스턴트 : 오미연 분장 어시스턴트 : 김진선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며칠 째 거센 바람으로 고립이 된 울릉도. 다방에서는 염사장과 김사장 그리고 황마담이 날씨 때문에 공공 묵인 울릉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에 대한 한탄을 늘어놓는다. 한편 상규의 집에서 전주에 자신을 물어달라는 내용을 남긴 채 죽은 명숙의 초상이 치러진다. 하지만 장의사 박씨의 의해 명숙이 가 흠뻑이 아니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박씨가 명숙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옮기려하자 사촌 오빠인 규회는 명숙의 죽음은 동네 사람 모두가 일조한 것이라고 명숙은 물에다 묻어야만 한다며 장례를 막는다. 규회가 명숙을 죽인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진다. 규회를 우선적으로 잡아야한다는데 다시금 의견이 모아지고 병력을 동원하기에 이른다. 사람들과 규회가 만나게 된 곳은 풍랑 때문에 나갈 수도 들어 올 수도 없는 선착장이다. 그 곳에서 규회는 칼을 들고 협박하며 빨리 배를 띄울 것을 강요한다. 명숙이를 엄마가 있는 물에 묻어야 된다는 규회의 주장과 풍랑에 갇혀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명숙의 죽음이 마을 사람들의 행위의 의한 원인이 밝혀지면서 서로들 자기 앞가림에 급급해진다. 결국 명숙의 관을 끌고 바다 속으로 향하는 규회의 절규로 사건은 마무리가 된다. 시간이 흐르고 일상으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은 지난 아픔의 망각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즐기며 극은 종료된다.</p>	<p>869명</p>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6. 12. 6(화) 사랑의 쉼터	찾아가는 공연 “알,비장전”	연출 : 이완희 *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p>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사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p> <p>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p> <p>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p> <p>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p> <p>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 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p> <p>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p>	100명
2016. 12. 7(수) 사회복지협의회 풍성하게			<p>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p> <p>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p>	100명
2016. 12. 8(목) 주안노인문화센터			<p>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p> <p>궤 속에서 툭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p>	200명
2016. 12. 9(금)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p>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p>	150명
2016. 12. 14(수) 남구노인복지관			<p>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p> <p>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p> <p>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150명

* 정기공연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2건 / 7회			2,918명
2016. 5. 27 ~ 5.29 대공연장 (4회)	제71회 정기공연 “꿈하늘”	<p>연출 : 김석만 극작 : 차범석</p> <p>*출연진*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훈 송주희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작곡 : 황호준 안무 : 박무영 무술지도 : 이정훈 무대디자인 : 임건수 조명디자인 : 신재희 영상디자인 : 신재희 음향감독 : 김현산 의상디자인 : 정경희 소품디자인 : 서정인 분장디자인 : 손진숙 사진 : 유재형 일본어지도 : 쥬카구치 토모 홍보디자인 : 김미연 헤어디자인 : 빅토리아 조명·영상 어시스트 : : 조희란 영상프로그래밍 오퍼레이터 : 현종찬 조예본 손지원 영상소스제작 : 김기봉 남윤아 조안무 : 김선영 무대감독 : 용선중 조연출 : 손경희</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박선영</p>	<p><꿈하늘>은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1880~ 1936))의 삶과 시인이며 역사학자였으며, 독립운동가로 활약한 그 분의 역사적 행적을 그린 서사극이다.</p> <p>최근 일본 각료들의 거듭된 역사적 책임에 대한 망언과 일본 헌법 개정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현실로 다가온 때에, 신채호 선생의 독립정신의 정기를 되새겨 보는 작품을 올리는 것은 시의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p> <p>특히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예술단체인 인천시립극단이 다양한 관객들과 역사적 현실과 미래에 바탕을 둔 현실적 역사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연극을 올린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바람직한 레퍼토리 선정이라고 볼 수 있다.</p> <p><꿈하늘>은 신채호 선생의 동명 소설 <몽천 夢天>(1916)에서 이름을 가져 왔으며, 차범석(1924~2006) 선생의 희곡 <식민지의 아침>(1986 발표)의 각색 공연작품이다. 신채호 선생은 항일투쟁시기에 그의 애국적 투쟁의식을 전하기 위하여 옛 고구려의 영화를 펼쳐 보이는 웅장한 중편소설 <몽천>을 발표하여 을지문덕 장군과 무궁화의 대화를 서술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제목을 가져왔으며 신채호의 독립의지와 꿈을 그리기 위하여 작품 9장에서 역사학자 신채호가 만주벌판에서 옛 고구려의 영화를 꿈꾸는 장면으로 연출된다.</p> <p><꿈하늘>은 1987년 국립극단 제125호 정기공연으로 올라간 바 있다. 당시에 차범석 선생의 <식민지의 아침>을 연출을 맡은 김석만에 의해서 <꿈하늘>로 각색하여 올렸다. 이번 인천시립극단의 2016년 첫 정기공연에서 1987년의 <꿈하늘>을 현재의 <꿈하늘>로 각색하여 올리게 된다. 주목할 것은 이번 공연에서는 신채호 선생의 말년의 독립투쟁활동기 가운데 무정부주의 활동을 부각시켜서 철저한</p>	2,149명

항일정신을 강조한 점일 것이다. 이는 최근 일본 각료들의 역사적 책임을 무시하는 망언적 발언과 행동에 경종을 울리며 동시에 올바른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작품은 신채호가 대련 감옥에서 임종을 앞두고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그의 독립운동

활동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신채호의 일대기를 세 시기로 나누어 청년기의 조선에서 항일운동, 중년기의 만주와 북경에서의 창작과 독립운동 시기, 장년기의 무정부주의 항일투쟁시기를 조명한다. 따라서 신채호는 배우 세 명이 제각기 다른 시기를 맡아서 변하는 신채호를 더욱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그려낼 것이다.

신채호의 계몽운동시기인 산동학원 시절부터 대한매일신문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다가 신간회 창립멤버로 활약하고 만주로 망명하기까지 젊은 신채호가 맡으며, 만주에서 역사저술을 하면서 김원봉의 의열단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시기에는 중년의 신채호를 그리며, 말년에는 무정부주의자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만주 대련 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를 장년의 신채호가 맡게 된다.

이러한 신채호의 일대기가 조선 반도와 반주벌판을 배경으로 전체 20장으로 구성된 서사극으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 참고**

<꿈하늘>은 가족극, 또는 역사를 배우는 중 고등, 대학생들에게 일제 강점기의 신채호 선생의 활약상을 토대로 역사교육의 현장을 강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인천 교육청 관할의 중 고등학교 역사교사를 상대로 “<꿈하늘>을 통해서 보는 일제 강점기 한국역사”와 같은 특강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6. 8.20 ~8.21 소공연장 (3회)</p>	<p>제72회 정기공연 “인천노트”</p>	<p>작 : 히라타 오리자 번역 : 성기웅 연출 : 강량원</p> <p>*출연진* 서국현 이범우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김문정 김태범 김태훈 송주희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객원> 이경미</p> <p>*스텝* 번역 : 성기웅 무대디자인 : 임일진 조명디자인 : 최보윤 음악 : 강영규 음향감독 : 이복행 소품디자인 : 장경숙 분장디자인 : 장경숙 무대감독 : 박상우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김미연 훈련장 : 이완희 조연출 : 손경희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박선영</p>	<p>이 연극의 무대는 인천 송도에 있는 미술관으로 17세기 화가들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그림을 좋아하는 장녀 덕택에 형제자매들이 그림을 관람하고 저녁식사를 할 예정으로 모였다. 공장과 직장에서 겨우 빠져나와 허겁지겁 달려오지만 대부분 약속시간을 한참 지나 도착한다. 먼저 온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한 사람씩 도착할 때마다 안부를 묻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p> <p>그리고 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로비에는 많은 관람객들과 미술관 관계자들이 지나가거나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나눈다.</p> <p>어떤 여대생은 우연히 옛 가정교사를 만난다. 한 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가 헤어진 그들은 담담하게 인사하고 헤어진다. 평화유지군으로 해외에서 복무하는 군인과 여자친구도 지나가고, 상속받은 그림을 미술관에 기부하는 수속을 밟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또 함께 사회운동을 했던 지금은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는 선배와 농촌운동을 할 예정인 후배가 만나 최근의 근황을 묻고 추억담을 나눈다.</p> <p>이것이 줄거리의 전부이다. 줄거리에서 보여지듯 이 연극은 특별한 사건이나 줄거리 없이 미술관에 온 관람객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관객들 역시 이들이 그려내는 무대를 담담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그들이 나누는 일상적인 모습일 뿐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묘하게도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처지가 환하게 꿰어지기 시작한다.</p> <p>예를 들면 1년 만에 시골에서 올라온 장녀를 만나는 형제자매들의 내력이 손에 잡힐 듯 고스란히 꿰어진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도 하지 않고 사는 누이에 대한 미안함이 숨겨져 있다. 그 미안함도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일상의 고단함</p>	<p>769명</p>

			<p>과 고민,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적인 문제 등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이밀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들이 나누는 떠들썩한 인사 속에는 도시 생활의 고단함과 고향에의 향수가 짙게 배어 있다. 또 반전운동을 함께 했던 선배와 후배에게는 사회 변혁 운동을 그만뒀다는 자책감속에서도 여전히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관찰되고, 군인과 여자 친구의 대화에서는 군인이 곧 전쟁지역으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과 군인이 겪고 있는 공포와 고독을 공감하게 된다.</p> <p>이 연극은 마치 등장인물이 관람하려는 17세기 그림과 유사하다. 츠베당 토도로프는 <일상예찬>이라는 책에서 '17세기 네덜란드 회화는 무릎 다듬고 감자껍질을 벗기는 아주 사소한 행위를 그렸는데 관람자는 그 그림 속에서 그들이 겪어온 일생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렇듯 이 연극은 등장인물들이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관객들은 그 섬세하게 포착된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세계 전체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다.</p>	
--	--	--	--	--

* 기획공연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1건 / 11회			869명
2015. 11. 4 ~ 11.13 소공연장 (13회)	기획공연 “선착장에서”	<p>원작 : 박근형 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정순미 김태범 김태훈 송주희 황혜원 권순정 이규호</p> <p>*스텝* 무대디자인 : 임일진 조명디자인 : 이나구 음향감독 : 이복행 음악감독 : 김두환 분장디자인 : 이지연 의상디자인 : 이지연 무대감독 : 임병찬 드라마트루그 : 김태범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김미연 조연출 : 손경희 무대디자인 어시스턴트 : 오미연 분장 어시스턴트 : 김진선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며칠 째 거센 바람으로 고립이 된 울릉도. 다방에서는 염사장과 김사장 그리고 황마담이 날씨 때문에 꼬꼬 육인 울릉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에 대한 한탄을 늘어놓는다. 한편 상규의 집에서 전주에 자신을 물어달라는 내용을 남긴 채 죽은 명숙의 초상이 치러진다. 하지만 장의사 박씨의 의해 명숙이가 흠뻑이 아니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박씨가 명숙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옮기려하자 사촌 오빠인 규회는 명숙의 죽음은 동네 사람 모두가 일조한 것이라고 명숙은 물에다 묻어야만 한다며 장례를 막는다. 규회가 명숙을 죽인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진다. 규회를 우선적으로 잡아야한다는데 다시금 의견이 모아지고 병력을 동원하기에 이른다. 사람들과 규회가 만나게 된 곳은 풍랑 때문에 나갈 수도 들어 올 수도 없는 선착장이다. 그 곳에서 규회는 칼을 들고 협박하며 빨리 배를 띄울 것을 강요한다. 명숙이를 엄마가 있는 물에 묻어아 된다는 규회의 주장과 풍랑에 갇혀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명숙의 죽음이 마을 사람들의 행위의 의한 원인이 밝혀지면서 서로들 자기 앞가림에 급급해진다. 결국 명숙의 관을 끌고 바다 속으로 향하는 규회의 절규로 사건은 마무리가 된다. 시간이 흐르고 일상으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은 지난 아픔의 망각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즐기며 극은 종료된다.</p>	869명

※ 찾아가는 시립극단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계	24건 / 24회			6,840명
2016. 7. 8(금) 무의도 포내경로당	찾아가는 공연 “알, 비장진”	연출 : 이완희 *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p>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사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p> <p>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p> <p>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p>	100명
2016. 7. 11(월) 용현중학교			<p>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p> <p>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p> <p>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p> <p>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p>	650명
2016. 7. 12(화) 영흥중고등학교			<p>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p> <p>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p>	240명
2016. 7. 13(수) 광성고등학교			<p>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빠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퀘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p> <p>퀘 속에서 툭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p>	670명
2016. 7. 14(목) 간재울중학교			<p>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퀘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p> <p>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퀘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p> <p>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p> <p>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60명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6. 7. 15(금) 남동고등학교			<p>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사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p> <p>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p> <p>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p>	800명
2016. 7. 18(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p>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p> <p>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 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p> <p>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p>	150명
2016. 7. 19(화) 강화여자고등학교	찾아가는 공연 “알, 비장전”	<p>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p> <p>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p> <p>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p> <p>궤 속에서 톱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p>	350명
2016. 7. 20(수) 인천외국어고등학교			<p>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p>	500명
2016. 9. 19(월) 예일고등학교			<p>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p> <p>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p> <p>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600명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6. 9. 20(화) 인천 7873부대	찾아가는 공연 “알,비장전”	연출 : 이완희 *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p>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사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p> <p>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p> <p>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p> <p>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p> <p>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 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p> <p>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p>	200명
2016. 9. 21(수) 산곡고등학교			<p>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p> <p>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p>	600명
2016. 9. 22(목) 남동구 노인복지관			<p>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p> <p>궤 속에서 툭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p>	100명
2016. 9. 23(금) 해군 223전진기지 (소이작도)			<p>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p>	80명
2016. 9. 26(월) 효드림복지센터			<p>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p> <p>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p> <p>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30명

일자/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6. 9. 27(화) 육군제61보병사단	찾아가는 공연 “알,비장전”	연출 : 이완희 *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p>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사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p> <p>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p> <p>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p> <p>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p> <p>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 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p> <p>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p>	500명
2016. 9. 28(수) 인천구치소			<p>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p> <p>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p>	100명
2016. 9. 29(목) 연일학교			<p>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p> <p>궤 속에서 툭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p>	250명
2016. 9. 30(금) 동산중학교			<p>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p>	160명
2016. 12. 6(화) 사랑의 쉼터			<p>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p> <p>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p> <p>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100명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16. 12. 7(수) 사회복지협의회 풍성하게	찾아가는 공연 “알,비장전”		<p>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사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p> <p>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p> <p>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p>	100명
2016. 12. 8(목) 주안노인문화센터		<p>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p> <p>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 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p> <p>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p>	200명
2016. 12. 9(금)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p>*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p> <p>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p> <p>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p> <p>궤 속에서 툭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p>	150명
2016. 12. 14(수) 남구노인복지관			<p>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p> <p>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p> <p>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p> <p>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150명

※ 기타공연

일자/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1건 / 1회			300명
2016. 7. 16(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공연 “알,비장전”	<p>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흥겨운 음악과 함께 고수의 사설과 알비장의 거들먹거림으로 극은 시작된다.</p> <p>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로 향한다.</p> <p>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p> <p>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p> <p>계곡에서 목욕하는 애랑, 혼자 떨어져 무료함 속에 있던 비장. 목욕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의 주 흐름은 방자 쪽으로 넘어온다.</p> <p>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하 계급 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p> <p>결국 1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재 잡고 넘어간다.</p> <p>방자의 놀음에 온갖 수모를 겪으며 가게 되는 애랑의 집.</p> <p>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p> <p>궤 속에서 툇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p> <p>바다가 아닌 동헌 마당에 던져진 알비장, 멀리서 들려오는 뱃노래에 자신이 들어 있는 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착각하여 목숨이나마 구하려는 알비장의 처절한 뉘우침이 나온다.</p> <p>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p> <p>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참회의 다짐을 한다.</p> <p>새롭게 태어난 알비장을 축하하며 방자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300명

시립극단 단원명단

예술감독 : 강량원

훈 련 장 : 이완희

단 무 장 : 김화산

조 연 출 : 손경희

사 무 : 이옥희, 이돈형

수 석 : 서국현, 차광영, 정순미

제1차석 : 강주희, 강성숙, 김태훈

제2차석 : 이범우, 심영민, 송주희

상임단원 : 김세경, 김현준, 최진영, 김문정, 김태범,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 2016년 12월 31일 기준